

탄소복합소재 연구기업 전주에 등지

영국 첨단제조기술연구원,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한국법인 설립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해외 우수기술력 습득 계획

전주시가 세계적인 탄소복합소재 연구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전주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영국 첨단제조기술연구원(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은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상용화기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찰스 헤이(H. E. 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 존 바라과나(John Baragwarath) AMRC 부사장, 이정환 AMRC Korea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법인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AMRC Korea) 개소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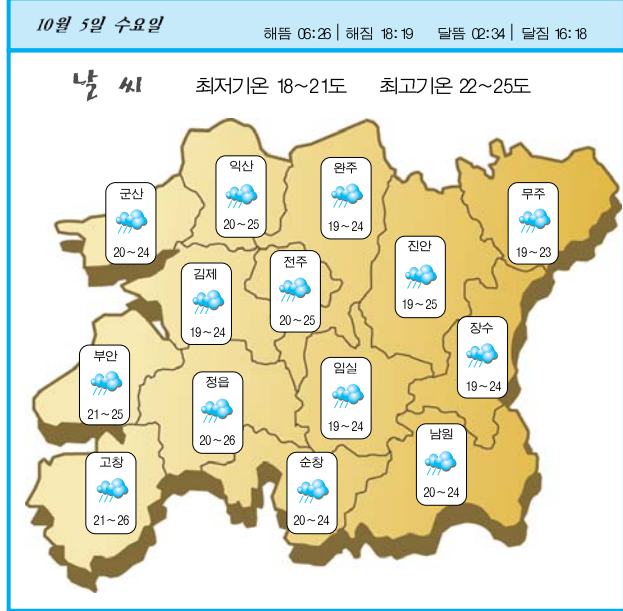


벼베기는 이렇게 4일 오전 서울 둔촌동 일자산 도시농업공원 내에 위치한 생태텃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가을걷이' 벼베기 체험을 하고 있다.

영국 셰필드대학교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AMRC는 탄소복합재료와 항공엔진 부품 분야의 연구를 통해 독일 지멘스와 영국 플러스코이스 등 100여개 회사와 6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복합재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날 한국법인이 전주에 등지를 틀면서 탄소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주시와 전북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재단법인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AMRC Korea)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탄소복합소재 분야의 해외 우수기술력을 습득할 계획이다.

또 AMRC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유럽 탄소기관과의 해외 네트워크 및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2년 AMRC와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FRP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개발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전주시와 전주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AMRC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탄소복합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이 전주에 온 것은 전주시가 해외 탄소시장에서 그

기술력과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공동연구와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을 통해 전주의 탄소산업이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의 개소로 전북의 기업들에게 영국 보잉사 부설 첨단제조연구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며 "전북의 기업, 연구기관과 탄소복합재 제조기술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AMRC는 영국 셰필드대학교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설립해 탄소복합재료, 항공엔진 부품 분야의 연구를 추진해 독일 지멘스, 영국 플러스코이스, 에어버스 등 100여개 회사와 6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의 탄소복합재 전문연구기관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강좌

환경·젠더·인권·빈곤 개발협력 관련 법분야·이슈

전북대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에 두 팔을 걷는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전북대 뉴실크로센터 308호에서 여는 이번 강좌에서는 '환경과 개발협력', '젠더와 개발협력', '인권과 개발협력', '빈곤과 개발협력'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분야 이슈를 다룬다고 밝혔다. 전북대가 학생들을 공개개발원조(ODA)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펼쳐는 다양한 교육사업 중 하나로 이번이 두 번째로 개설되는 ODA 교육 심화 과정이다. 강사진은 KOICA 직원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가 참여해 내실 있는 교육이 기대된다. 이전의 ODA자격증 3급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올해부터 일본분야와 사업 분야를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민간은 센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KOICA ODA교육원과 동일한 과정 및 내용으로 진행되는 만큼 ODA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라북도-KOICA-전북대학교 3자간 협력약정 체결을 통해 2016년 1월, 전북대학교 내에 설립되었다. 연간 230억에 달하는 ODA 사업에 지방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설된 센터는 각종 ODA사업 및 모집설명회, ODA이해증진 및 세계시민교육, 사업 참여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이달 가을축제·대규모 행사 빈틈없는 준비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위원회·한국민속예술축제 등 다양한 시민행사 개최 예정

전주시가 축제의 달 10월을 맞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각종 축제와 대규모 행사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일 전주시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주에서 국제슬로시티 국제조정위원회(6~9일)와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13~14일) 등 다양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또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3~16

일)와 전주비빔밥축제, 2016 국제발효식품엑스포 등 대표적인 가을 축제는 물론 전주시민체육대회(15일)와 덕진구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6일), 기린봉 호반 문화축제(8일)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행사도 예정돼있다. 시는 이에 따라 대부분의 축제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대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편의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

지를 심어주기 위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주요 행사장과 주요 진·출입 도로변, 상습 쓰레기 적치 지역 등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선다. 또 행사장 및 주변 지역에 불법 노점상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행사시간을 전·후해 행사장과 주요노선 등에 교통단속반을 배치하고 소풍 위주의 단속을 실

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예년보다 높은 날씨로 인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점검반을 편성해 행사장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축제의 계절인 10월 전주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주민행사, 국제회의가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을 통해 모든 축제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 내년 학교 무상급식비 81억원 추가 투입

내년도 전북지역 학교 무상급식비로 8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무상급식단가 200원 인상안 합의로 도교육청이 51억원, 시·군청이 16억원, 도청이 14억원을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 8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무상급식 단가가 유치원 2,200원, 초등학교 2,400원, 특수학교 2,900원, 중·고등학교 3,100원으로 인상되면, 내년도 전북도 무상급식 총 예산은

978억원으로 증액된다. 유치원, 특수학교,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도교육청이 100%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정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2016 Heungbu Festival
우애·나눔·보은·행운

흥부축제

제24회

2016.10.7(금)~9(일)

사랑의 광장 일원

개막식 10.7(금) 19시 / 무형유산 한마당 10.8(토)14시, 사랑의 광장

주최 : 남원시 · 주관 : 흥부제전위원회 · 후원 :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국악원 남원시 농·축협